

인바디 (041830)

한미약품의 동반자

매수(신규)

목표주가 (신규)	81,000원
현재가 (8/26)	60,3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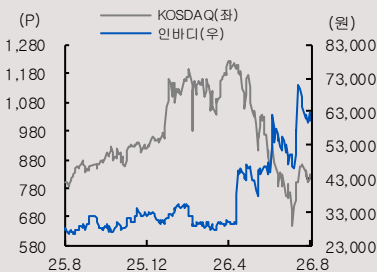
KOSDAQ (8/26)	826.87pt
시가총액	8,129억원
발행주식수	13,481천주
액면가	500원
52주 최고가	70,800원
최저가	26,550원
60일 일평균거래대금	71억원
외국인 지분율	33.0%
배당수익률 (2026F)	1.6%

주주구성	
차기철 외 6 인	29.10%
FIDELITY MANAGEMENT	9.99%

주가상승	1M	6M	12M
상대기준	15%	159%	112%
절대기준	27%	80%	119%

	현재	직전	변동
투자의견	매수	-	-
목표주가	81,000	-	-
EPS(26)	3,846	-	-
EPS(27)	4,332	-	-

인바디 주가추이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리서치부문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객께서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해 최종 결정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체중 감량’에서, ‘지방 감량’의 시대로

최근 근손실을 최소화한 한미약품의 차세대 비만 치료제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단순 체중 감량보다 ‘감량의 질’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체성분분석기 수요 확대는 불가피하며 대표 주자인 인바디의 수혜가 가시화될 것으로 판단한다.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비만 치료의 기준 지표로 체질량지수(BMI=몸무게/키²)를 제시하고 있으나, 근육량, 체지방률 등 개인의 차이를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도 인정하고 있다. 이미 임상 현장과 학계에서는 체성분 분석을 통한 환자 맞춤형 비만 치료를 도입하고 있으며, 체성분분석기는 건강 상태 참고용 ‘보조 기구’에서, 비만 치료 시대의 ‘핵심 모니터링 인프라’로 재평가되고 있다.

체성분분석기 전방 시장 ‘6배’ 확대

비만 치료 모니터링 도구로서 인바디의 핵심 타깃 시장은 글로벌 2억 명 규모의 피트니스 시장에서 글로벌 10억 명 규모의 비만 치료 시장으로 확장되었다. 보급 대상도 기존 헬스장 중심에서 병원, 연구소 등 전문 의료기관으로 축이 이동하고 있고, 국가별 수요 역시 선진국 위주에서 글로벌로 확대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비만치료제 수요 고객이 기존 고객층과 상이하여 시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신규 시장의 창출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만 치료제 밸류체인 진입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81,000원으로 커버리지를 개시한다. 비만 치료제 확산 이후 1) 글로벌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고, 2) 환자 데이터 수집 및 관리 필요성에 따른 Lock-in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3) 피트니스 시장에서 쌓은 인지도와 신뢰도를 바탕으로 의료용 시장에서의 선점효과가 예상된다. 인바디가 ‘비만 치료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비만 치료제 밸류체인에 걸맞은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단위:억원,배)	2024	2025	2026F	2027F	2028F
매출액	2,045	2,339	2,892	3,453	4,066
영업이익	367	368	581	709	892
세전이익	439	386	658	745	960
지배주주순이익	331	306	519	584	751
EPS(원)	2,422	2,266	3,846	4,332	5,568
증가율(%)	-9.7	-6.4	69.8	12.6	28.5
영업이익률(%)	17.9	15.7	20.1	20.5	21.9
순이익률(%)	16.0	12.8	17.7	16.7	18.2
ROE(%)	12.7	10.4	15.2	15.1	17.1
PER	9.6	14.5	15.8	14.1	10.9
PBR	1.2	1.4	2.3	2.0	1.7
EV/EBITDA	5.0	6.8	9.8	7.9	5.9

자료: Company data, IBK투자증권 예상

맞춤형 비만 치료에는 체성분 기준이 필요

학회/전문가들은 GLP-1
치료를 받는 모든 환자에
체성분 검사를 권고

상용화된 GLP-1(Glucagon-Like Peptide-1, 식욕 억제 호르몬) 계열 치료제의 경우, 전체 감량 체중의 60~75%는 체지방, 나머지 25~40%는 근육 및 골격량의 감소로 구성된다. 현재 비만 치료제 처방 및 치료는 BMI(체질량지수)만을 단일 기준으로 삼고 있어, 내장 비만 환자를 정상으로, 근육량이 높은 운동선수를 비만으로 분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학회 및 전문가들은 정밀한 처방과 관리를 위해 GLP-1 치료 환자에 정기적인 체성분 검사를 권고하고 있다. 차세대 비만 치료제의 선두 주자인 한미약품의 개발 방향이 근육량을 보존하며 지방만을 선택적으로 타겟하는 ‘질적 체중 감량’인 만큼, 임상 단계부터 처방 후 모니터링 단계까지 ‘감량의 질’을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체성분분석기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BIA(전류저항방식) 장비는
가격이 저렴하고,
설치와 사용이 자유로움

체성분분석기 시장은 측정 방식에 따라 엑스레이 방식의 DEXA(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와 전류저항 방식의 BIA(Bioelectrical Impedance Analysis)로 양분되어 있다. DEXA 방식은 체성분 분석의 표준 지표로 활용될 만큼 정밀하지만,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장비 가격뿐만 아니라 X-ray 차폐 시설 구축 및 전담 방사선사 상주가 필수적이어서 비용 부담이 크다. BIA 방식은 인체 수분 및 전기 저항 차이를 활용하는 기술로, DEXA 대비 상대적인 오차는 존재하나 장비 가격이 수백만 원대로 저렴하고 공간 제약 없이 간편하게 반복 측정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그림 1. 美 FDA는 비만 치료의 표준 지표로 BMI 사용이 불가피하나, 한계점이 있음을 인정

FDA는 비만 치료제 개발
가이드라인에서 BMI의
불완전함을 인정

BMI is inexpensive, universally available, easy to calculate, reproducible, and correlates strongly with total body fat in nonelderly adults.

저렴한 가격, 보편적 사용, 쉬운 계산 등 BMI를 표준 지표로 사용

BMI has several limitations. Although higher BMI is strongly associated with increased body fat, BMI is not a direct measure of body fat, and it does not inform the distribution of excess body fat. In clinical practice, supplementing BMI with other anthropometric measures, such as waist circumference, may be appropriate in certain individuals.

그러나, BMI는 한계점이 존재하며,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측정 방식의 효용성을 인정
thickness is operator dependent and has relatively poor reproducibility. Bioelectrical impedance may vary depending on the hydration status of the individual. Imaging modalities, such as dual x-ray absorptiometry (DXA) or magnetic resonance imaging, may provide more precise measures of body fat but are expensive and require use of multiple blinded, central readers for
체성분 분석이 더 정확한 체지방 정보를 제공하지만, 체수분 상태에 영향을 받는 BIA나, 측정이 비싸고 다중 맹검이 필요한 DXA(DEXA)는 한계가 있음

자료: FDA "Developing Drugs and Biological Products for Weight Reduction Guidance for Industry 2025", IBK투자증권

의사가 1인인 경우
설치할 수 있는
체성분분석기는 BIA

결론적으로 비만 모니터링을 위한 체성분분석기 수요는 BIA 방식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은 비만 치료제 진단 및 처방의 90% 이상이 1차 의료기관 및 비만 클리닉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체성분분석기 수요도 이들을 중심으로 형성될 것이다. 9,4만 개의 미국 1차 의료기관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전체 병원의 72%가 진료 의사 2인 이하인 영세한 형태로, 방사선 차폐 시설이나 전담 인력이 필요 없는 BIA 방식이 채택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판단한다.

‘10억 비만 인구’로 전방 시장 확장

비만 치료제의 등장 이후
병/의원, 연구소에서
체성분석기기 수요 확대

과거 체성분석기의 주 이용층은 운동선수와 피트니스 인구로, 인바디의 핵심 매출처 역시 피트니스 센터에 집중되어 있었다. 2023년 비만치료제 확산 이후에는 임상시험, 연구, 처방 후 모니터링 단계에서 병/의원 및 연구기관의 장비 수요가 가속화되고 있다. 2026년 상반기 인바디의 미국 법인 매출 비중을 보면 병원/의료기관이 43.6%, 피트니스/스포츠가 23.3%를 차지한다. 의료기관 매출 비중이 피트니스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올라서며 구조적인 체질 개선이 확인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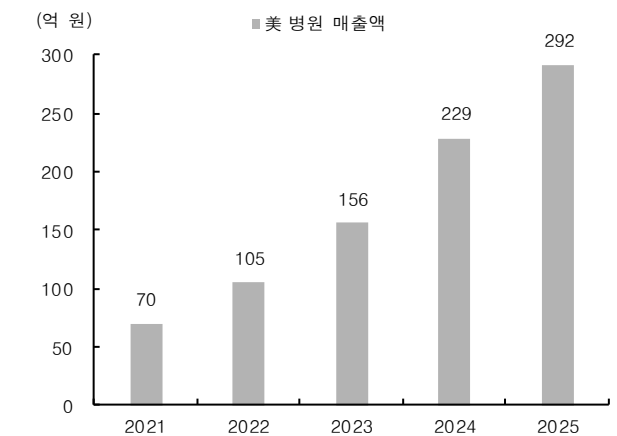
체성분석기기 전방 시장
4만 美 피트니스 센터에서
22만 美 병/의원으로

체성분석기의 잠재 시장 규모는 기존 대비 6배 이상 확장된 것으로 판단한다. 기존 핵심 타깃이었던 미국 내 피트니스 센터 수는 약 4만 개, 회원권 보유 인구는 약 7,000만 명 수준이다. 반면 미국 내 의료기관 수는 약 22.4만 개로, 기존 시장의 5배 이상이다. 여기에 건강검진센터, 비만 전문 클리닉, 대형 약국 체인까지 포함하면 체성분석기의 설치 가능 시장은 가파르게 확대될 전망이다.

비만치료제 확산 이후
개발도상국에서의
인바디 수요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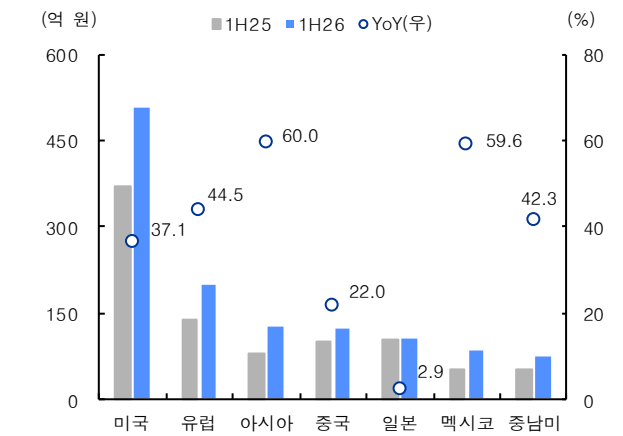
글로벌 피트니스 인구는 약 2억 명, 비만 인구는 약 10억 명으로 추산되는 만큼 전방 사용자 규모 역시 기존 대비 5배 이상 확장될 전망이다. 기존 중남미, 아시아(일본, 중국 제외) 등 개도국에서는 전문가용 인바디 장비에 대한 가격 저항도가 높았지만, 비만 치료제 모니터링용 수요가 확대된 이후 선진국보다 개도국에서의 매출 성장세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비만 치료가 보편화되고 체성분석기가 ‘필수’ 인프라로 자리잡으며 개도국에서도 가격 저항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림 2. 비만치료제 등장 이후, 美 병원 향 인바디 매출 급증



자료: 인바디, IBK투자증권

그림 3. 인바디 지역별 매출액 추이



자료: 인바디, IBK투자증권

가정용 인바디는 블루오션

미국 비만인구 비중 40%
미국 단독주택 비중 65%

비만은 단기적으로 완치되는 질환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으로, GLP-1 처방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가정용 체성분분석기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성인 비만율이 약 40%(과체중 포함 시 약 70%)에 달하는 주요 시장인 데다, 단독주택 주거 비중이 65% 수준으로 높아 홈 헬스케어 디바이스의 수용도가 높다. 비만 치료의 일상화와 미국 특유의 주거 환경이 결합하면서, 가정용 인바디(InBody Dial) 라인업의 침투율 확대와 구조적 성장세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가정용 인바디 경쟁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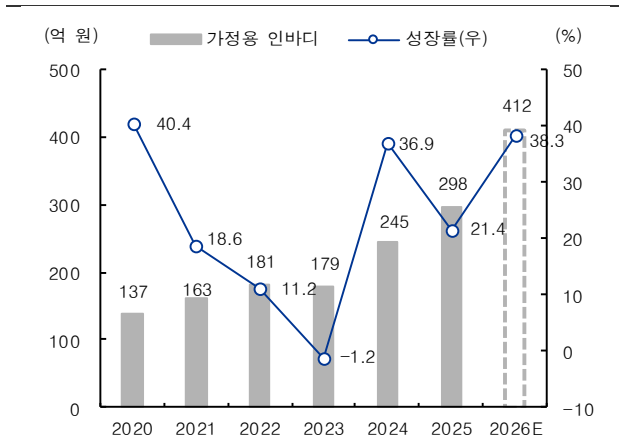
- 1) 높은 브랜드 인지도
- 2) 정확도와 재현력
- 3) 전문가용 인바디 연동

가정용 체성분분석기 시장에서 인바디는 일반 보급형 대비 프리미엄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1) 압도적인 브랜드 인지도, 2) 측정 정확도와 재현성, 3) B2B 전문가용 데이터와 B2C 앱(클라우드) 연동이라는 차별화 요인을 바탕으로 가정용 시장 내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가장 큰 경쟁력은 전문가용 시장에서 구축한 브랜드력이다. 시장에서 쌓은 신뢰도와 점유율이 가정용 제품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주요 경쟁사인 일본 Tanita, 독일 Seca의 B2C 시장 진출이 더딘 상황에서, 프리미엄 가정용 체성분분석기 시장의 수요는 사실상 인바디가 독점하고 있다. 이미 미국의 피트니스와 건강관리 시설에는 인바디 제품이 보편화 되어있고, 국내와 마찬가지로 ‘인바디’라는 브랜드명이 고유 명사가 되는 수준에 다가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가정용 프리미엄 체성분
분석기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 확보, 사실상 독점

가정용 체성분분석기 시장에서는 일반 스마트 체중계와의 직접적인 경쟁이 일어난다. 스마트 체중계 시장의 메인스트림은 30~100달러 수준의 저가형 제품으로, Withings, Fitbit, Xiaomi 브랜드 및 중국산 저가 OEM 제품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들은 직접적인 측정보다는 신장과 체중 기반 알고리즘 추정에 의존하여 정밀도가 낮다. 인바디는 측정 정확도와 기능을 대폭 확대한 300~400달러 대의 ‘InBody Dial H30, H40’을 출시하여 프리미엄 가정용 체성분분석기 시장을 성공적으로 개척하고 있다.

그림 4. 비만치료제 보편화 이후 가정용 인바디 성장 확대



자료: 인바디, IBK투자증권

그림 5. 가정용 인바디 제품군

	InbodyDial H20 (1세대)	InbodyDial H30 (2세대)	InbodyDial H40 (3세대)
제품명			
출시 시기	2017.08	2023.07	2025.05
출시 가격	328,000원	379,500원	459,000원
주요 특징	체지방률, 골격근량	체수분, 주파수 확대	부위별, 신체밸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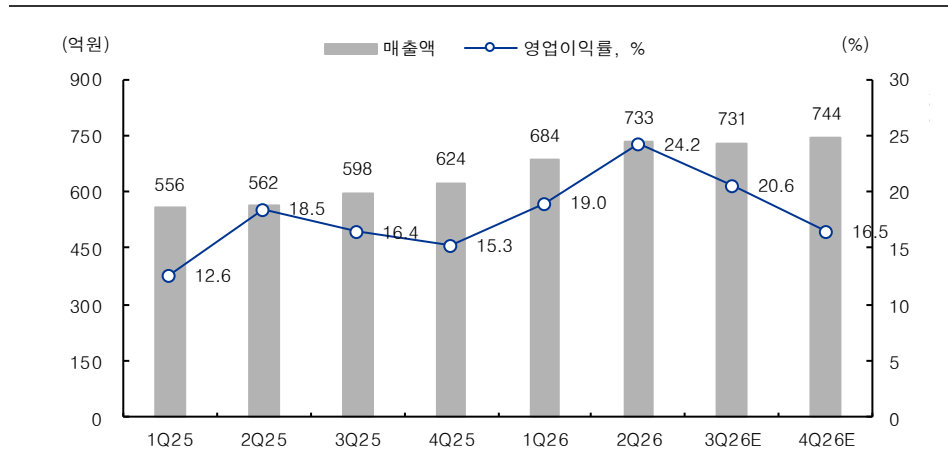
자료: 인바디, IBK투자증권

실적: 선제적 투자의 결실

2025년 선제적 영업망
투자가 적중하며
2026년 외형 성장 및
영업 레버리지 본격화

2026년 예상 실적은 매출액 2,892억 원(YoY +23.6%), 영업이익 581억 원(YoY +58.0%), 영업이익률 20.1%(YoY 4.4%p)로 추정한다. 비만 치료 모니터링 수요 급증에 따른 전문가용, 가정용 인바디 수요가 실적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한다. 인바디는 2025년 수요 확대에 따른 선제적인 해외 영업망 확대로 판관비가 급증하였으나, 2026년 들어 본격적인 실적 확대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여 영업이익 측면에서 빠른 개선이 일어나고 있다. 3Q26부터 원/달러 환율의 하락으로 숫자로 나타나는 성장세는 다소 둔화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 영업적인 측면에서는 높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 6. 인바디 분기별 영업실적 추이 및 전망



자료: 인바디, IBK투자증권

표 1. 인바디 실적 전망

(단위: 억 원, %)

	1Q25	2Q25	3Q25	4Q25	1Q26	2Q26	3Q26E	4Q26E	2025	2026E	2027E
매출액	556	562	598	624	684	733	731	744	2,339	2,892	3,453
YoY, %	14.8%	11.8%	17.9%	13.3%	23.1%	30.4%	22.2%	19.3%	14.4%	23.6%	19.4%
_인바디(전문+SW)	412	405	430	465	510	542	519	548	1,712	2,119	2,518
_인바디(가정)	65	70	88	74	87	102	120	103	298	412	540
_기타	79	87	80	84	87	89	91	94	330	362	395
매출원가	133	110	151	134	170	143	174	176	529	663	831
매출원가율, %	24.0%	19.7%	25.3%	21.5%	24.8%	19.6%	23.9%	23.6%	22.6%	22.9%	24.1%
매출총이익	423	451	447	490	515	589	556	569	1,810	2,229	2,623
매출총이익률, %	76.0%	80.3%	74.7%	78.5%	75.2%	80.4%	76.1%	76.4%	77.4%	77.1%	75.9%
판매 및 일반관리비	353	347	348	395	384	412	406	446	1,443	1,648	1,914
판관비율, %	63.4%	61.8%	58.2%	63.2%	56.2%	56.2%	55.6%	59.9%	61.7%	57.0%	55.4%
영업이익	70	104	98	95	130	177	150	123	368	581	709
YoY, %	-30.0%	10.4%	0.1%	26.9%	86.0%	70.7%	52.7%	29.2%	0.0%	58.0%	22.0%
영업이익률, %	12.6%	18.5%	16.4%	15.3%	19.0%	24.2%	20.6%	16.5%	15.7%	20.1%	20.5%

자료: 인바디, IBK투자증권

Valuation: 이유 있는 Re-rating

의료기기 프리미엄 요건

- 1) 글로벌 성장성
- 2) 고객 Lock-in
- 3) 장기적인 현금흐름

의료기기 업종이 높은 멀티플을 받는 이유는 1) 글로벌 확장을 통한 성장성, 2) 기술 진입 장벽과 고객 Lock-in 효과, 3) 선도기업이 시장의 표준이 되는 선점효과 때문이다. 체성분분석기는 의료기기 범주로 분류되었음에도 위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해 저평가를 받아왔지만, 체성분분석기가 비만 치료 밸류체인에 편입된 이후 1) 미국, 유럽, 중남미, 아시아 등 글로벌 성장성이 확대되고 있고, 2) 환자 데이터 수집 및 관리 필요성에 따른 Lock-in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3) BIA 시장을 개척하고 피트니스 시장에서 인지도를 쌓아온 인바디가 비만 치료 시장에서도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81,000원

Target PER 20.8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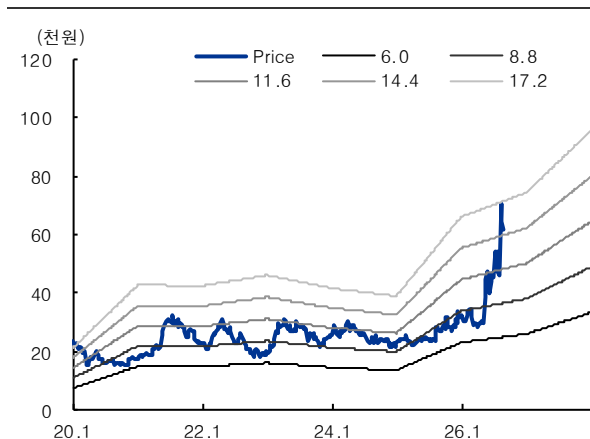
인바디의 할인 요인은 대부분 해소되었고, 의료기기 수준의 멀티플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인바디에 대한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주가는 12개월 선행 EPS 3,878원에 2026년 국내 의료기기 업종 평균 Target PER 20.8x를 적용한 81,000원으로 제시한다. 높아진 멀티플에 대한 부담보다는 비만 치료제로 인해 확장되고 있는 전방 시장에 주목할 때라고 판단한다.

표 2. 인바디 목표주가 산출

항목	적정가치	비고
12MF 지배주주순이익	522.8억 원	3Q26~2Q27
발행주식 수	13.5백만 주	자기주식 포함
12MF EPS	3,878원	3Q26~2Q27
Target Multiple	20.8x	PER(배), 26Y 국내 의료기기 업종 평균
적정주가	80,667원	
목표주가	81,000원	
현재주가	60,300원	2026-08-26 종가
Upside	3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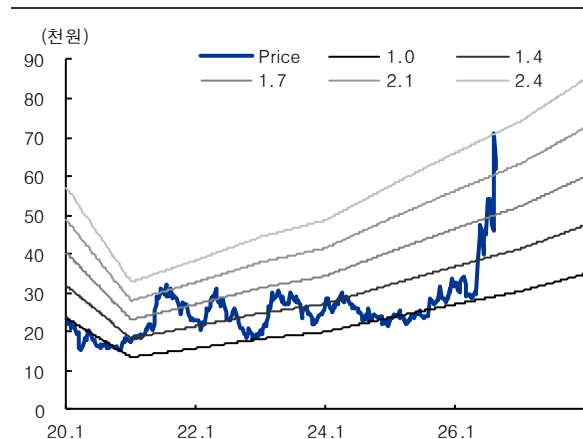
자료: IBK투자증권

그림 7. 인바디 선행 PER 밴드



자료: 인바디, IBK투자증권

그림 8. 인바디 선행 PBR 밴드



자료: 인바디, IBK투자증권

인바디 (041830)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24	2025	2026F	2027F	2028F
매출액	2,045	2,339	2,892	3,453	4,066
증가율(%)	20.0	14.4	23.6	19.4	17.7
매출원가	462	529	663	831	980
매출총이익	1,582	1,810	2,229	2,623	3,085
매출총이익률 (%)	77.4	77.4	77.1	76.0	75.9
판매비	1,215	1,443	1,648	1,914	2,193
판매비율(%)	59.4	61.7	57.0	55.4	53.9
영업이익	367	368	581	709	892
증가율(%)	-4.2	0.0	58.0	22.0	25.9
영업이익률(%)	17.9	15.7	20.1	20.5	21.9
순금융손익	70	22	110	49	62
이자손익	30	25	40	51	62
기타	40	-3	70	-2	0
기타영업외손익	5	6	-33	-12	6
중속/관계기업손익	-4	-10	1	0	0
세전이익	439	386	658	745	960
법인세	111	86	148	170	221
법인세율	25.3	22.3	22.5	22.8	23.0
계속사업이익	327	300	511	575	738
중단사업손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327	300	511	575	738
증가율(%)	-10.5	-8.3	70.3	12.5	28.5
당기순이익률 (%)	16.0	12.8	17.7	16.7	18.2
지배주주당기순이익	331	306	519	584	751
기타포괄이익	31	6	24	0	0
총포괄이익	358	306	534	575	738
EBITDA	438	454	662	784	967
증가율(%)	-1.1	3.5	45.9	18.4	23.5
EBITDA마진율(%)	21.4	19.4	22.9	22.7	23.8

투자지표

(12월 결산)	2024	2025	2026F	2027F	2028F
주당지표(원)					
EPS	2,422	2,266	3,846	4,332	5,568
BPS	19,948	23,578	27,014	30,356	34,835
DPS	400	600	1,000	1,100	1,400
밸류에이션(배)					
PER	9.6	14.5	15.8	14.1	10.9
PBR	1.2	1.4	2.3	2.0	1.7
EV/EBITDA	5.0	6.8	9.8	7.9	5.9
성장성지표(%)					
매출증가율	20.0	14.4	23.6	19.4	17.7
EPS증가율	-9.7	-6.4	69.8	12.6	28.5
수익성지표(%)					
배당수익률	1.7	1.8	1.6	1.8	2.3
ROE	12.7	10.4	15.2	15.1	17.1
ROA	11.3	9.0	13.2	13.1	14.8
ROIC	27.1	23.3	38.3	41.1	50.3
안정성지표(%)					
부채비율(%)	11.7	12.9	13.3	13.9	14.1
순차입금 비율(%)	-36.0	-41.6	-47.4	-49.8	-52.8
이자보상배율(배)	95.6	72.9	155.9	227.5	287.9
활동성지표(배)					
매출채권회전율	11.0	9.0	9.2	9.9	10.2
재고자산회전율	6.1	6.2	6.9	6.7	6.7
총자산회전율	0.7	0.7	0.7	0.8	0.8

*주당지표 및 밸류에이션은 지배주주순이익 및 지배주주지분 기준

재무상태표

(억원)	2024	2025	2026F	2027F	2028F
유동자산	1,714	2,132	2,673	3,124	3,722
현금및현금성자산	310	524	877	1,101	1,479
유가증권	726	863	893	975	1,035
매출채권	223	298	327	372	424
재고자산	378	375	469	558	652
비유동자산	1,344	1,479	1,465	1,541	1,624
유형자산	835	872	880	882	889
무형자산	20	19	15	13	11
투자자산	252	282	298	322	346
자산총계	3,058	3,611	4,139	4,665	5,346
유동부채	258	329	411	490	572
매입채무및기타채무	2	1	3	3	4
단기차입금	0	6	0	0	0
유형성장기부채	0	0	0	0	0
비유동부채	61	84	74	81	89
사채	0	0	0	0	0
장기차입금	0	0	0	0	0
부채총계	319	413	485	571	660
지배주주지분	2,730	3,178	3,642	4,092	4,696
자본금	68	68	68	68	68
자본잉여금	6	69	70	70	70
자본조정등	-195	-23	-22	-22	-22
기타포괄이익누계액	47	53	77	77	77
이익잉여금	2,804	3,011	3,449	3,900	4,503
비지배주주지분	9	19	12	2	-10
자본총계	2,739	3,198	3,653	4,094	4,686
비이자부채	268	358	448	534	623
총차입금	51	55	37	37	37
순차입금	-985	-1,331	-1,733	-2,038	-2,476

현금흐름표

(억원)	2024	2025	2026F	2027F	2028F
영업활동 현금흐름	286	358	387	533	665
당기순이익	327	300	511	575	738
비현금성 비용 및 수익	142	210	30	39	8
유형자산감가상각비	66	79	77	73	74
무형자산상각비	5	7	4	2	1
운전자본변동	-127	-82	-151	-132	-143
매출채권등의 감소	-47	-119	-18	-45	-52
재고자산의 감소	-53	-3	-71	-89	-94
매입채무등의 증가	-22	-17	-26	0	1
기타 영업현금흐름	-56	-70	-3	51	62
투자활동 현금흐름	-57	-295	-74	-255	-223
유형자산의 증가(CAPEX)	-63	-69	-70	-75	-80
유형자산의 감소	2	2	1	0	0
무형자산의 감소(증가)	-13	-5	0	0	0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13	-25	64	-24	-24
기타	30	-198	-69	-156	-119
재무활동 현금흐름	-151	133	15	-54	-64
차입금의 증가(감소)	0	0	0	0	0
자본의 증가	0	0	0	0	0
기타	-151	133	15	-54	-64
기타 및 조정	10	17	25	0	0
현금의 증가	88	213	353	224	378
기초현금	223	310	524	877	1,101
기말현금	310	524	877	1,101	1,479

Compliance Notice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는 조사분석자료 작성에 참여한 외부인(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등)이 없습니다.

조사분석 담당자 및 배우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종목명	담당자	담당자(배우자) 보유여부			1%이상 보유여부	유가증권 발행관련	계열사 관계여부	공개매수 사무취급	IPO	회사채 지급보증	중대한 이해관계	M&A 관련
		수량	취득가	취득일								

해당 사항 없음

투자 의견 안내 (투자기간 12개월)

종목 투자 의견 (절대수익률 기준)			
매수 15% 이상	Trading Buy (중립) 0%~15%	중립 -15%~0%	축소 -15% 이상 하락
업종 투자 의견 (상대수익률 기준)			
비중확대 +10% ~	중립 -10% ~ +10%	비중축소 ~ -10%	

투자등급 통계 (2025.07.01~2026.06.30)

투자등급 구분	건수	비율(%)
매수	143	95.3
Trading Buy (중립)	6	4
중립	1	0.7
매도	0	0

최근 2년간 주가 그래프 및 목표주가(대상 시점 1년) 변동 추이

(▲) 매수, (■) Trading Buy (중립), (●) 중립, (◆) 축소, (■) Not Rated / 담당자 변경

인바디	추천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원)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원)	2026.08.26	매수	81,000		